

성경과 고대 제국 <제 4 편> (9/3/2012)

멸망한 바벨론 제국과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 두 제국 사이에는 정책의 핵심포인트가 전혀 다를 수 있다. 정치와 경제와 국력은 상호 정비례한다. 바벨론의 정책은 패전국들의 똑똑한 인재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와 바벨론 제국을 부흥시키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바벨론 본국을 부흥시키겠지만, 인재들을 모두 빼앗긴 패전국들은 대부분 황폐하고 가난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패전국들로 부터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작을 수 밖에 없으니 본국의 국력도 날로 쇠퇴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카루스 2 세는 바벨론의 포로들을 모두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그 속국의 유능한 사람을 총독으로 삼고 경제를 살리게 하여 더 많은 세금을 페르시아에 바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다. 본국과 속국의 윈윈 전략이다. 이 시대에 느헤미야, 스룹바벨 같은 유능한 사람들이 유대 총독으로 등장한다.

바벨론까지 점령한 페르시아는 이제 이집트만 점령하면 되었다. 이집트를 공격하려면 사막을 건너야 하고 그럴려면 물이 해결되어야 하기에 아라비아인에게 동맹을 청한다. 이에 아라비아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집트를 공격하여 손에 넣게 된다.

<바벨론의 반란> : 바벨론은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한다. 모든 가정에 어머니와, 식사준비를 위한 여자 1 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여자들은 죽여 버린다. 전쟁에서 식량을 아끼겠다는 독한 의지다. 페르시아 왕 다레이오스 (다리오) 은 반란 소식을 듣자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19 개월동안 대치한다. 이때 조피로스라는 페르시아의 충신이 역적인양 위장하여 바벨론에 거짓 투항을 한다. 그는 결국 신임을 얻어 바벨론 성벽의 총지휘관이 되며, 57 일째 되는 날 성문을 열어둔다. 다레이오스 왕은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고 바벨론 남자들을 다치는대로 죽인다. 특히 반란주자 3 천명은 말뚝에 박아 말려 죽인다. 이후 바벨론의 통치권을 조피로스에게 주고 바벨론으로 여자 5 만명을 보낸다. 현재 바벨론 사람들은 이들의 혈육이라고 할 수 있다.

<3 차 페르시아 전쟁> : B.C. 492 년 1 차 그리스 침공. 다리오스 왕은 심한 폭풍을 만나 싸움 한번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함대 300 여척이 침몰하고 만다. 스키타이와의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리스의 이오니아 지방에서는 이 기회에 그리스 본국의 지원을 받으면 페르시아 지배에서 독립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지원 요청을 한다 (B.C. 499 년), 아테네는 지원을 하지만 스파르타는 거부한다. 492 년 페르시아는 공격을 하지만 다행히도 폭풍으로 살아남는다. 그 이후 다시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공격하는데 B.C. 490 년이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이다. 그때 페르시아 전력은 2 만명의 보병과 5 천명의 기병, 삼단노선 200 척, 수송선 400 척, 수병 4 만명이었던 반면에, 아테네는 9 천명의 보병이 전부였고 기병도 함대도 없었다. 아테네의 명장 밀티아데스는 1 만명의 시민병을 이끌고 마라톤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페르시아군대를 기다린다. 싸우기 좋은 장소로 적을 유인하고 적을 먼저 공격하려 나서지만 엄청나게 늦은 속도로 진격하다가 순식간에 양 측면에서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이다. 마라톤 전투는 총 전투시간이 15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쟁으로 페르시아 군대의 전사자는 6,400 명, 아테네는 192 명이었다고 한다.

<살라미스 해전> : 다리오스가 죽은 뒤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일으킨 살라미스 해전은 세계 4 대 해전중의 하나이다. 그는 그리스 원정을 위해 4 년간 철저히 준비한다. 마침내 B.C.480 년 크세르크세스는 역사상 가장 많은 원정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출격한다. 페르시아 함대는 1,200 척이었으며, 아테네 함대는 100 척과 연합군 함대 300 척이 모두였다. 아테네는 전쟁도 하지 않고 아테네를 비운채 살라미스 섬으로 철수한다. 살라미스 해전은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과 유사하다. 해협 폭이 좁아 배 2 척만이 겨우 빠져 나올수 있는 곳이다. 적선들은 3 중 전열을 2 열 종대로 바꾸어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이 해협에서 8 시간 전투동안 200 척의 함대가 격침당하고 200 척의 함대가 포획당한다. 전사자는 4 만명으로 추정한다. 페르시아 군대는 완전히 참패하고 만다. 이 전쟁으로 그리스는 완벽한 동지중해의 지배권을 갖게 된다.

<마케도니아 전쟁> : B.C. 359 년 필리포스 2 세가 마케도니아 왕이 된다. 그는 현재의 유고슬라비아인 일리리아와 트라키아, 테살리아를 정복한다.이어서 고린도로 쳐들어가 성을 무자비하게 파괴시켜 버린다. 그는 테베와 아테네 연합군까지 격파하고 나서 그리스 전체 패권을 차지하게 된다. 남부 그리스인들에게 야만인 취급을 받던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전체를 통치하게 된 것은 서양의 보병과 동양의 기병을 통합한 통합군 덕분이었다. 이 시기가 성경의 말라기서에 해당한다.

<이수스 전투> : 페르시아 제국을 헬라 (성경의 신구약 중간기 약 400 년에 해당하는 시기) 에게 넘기게 된 전쟁이다. 마케도니아의 핵심은 기병이다. 20 세에 왕위에 오르게 된 알렉산드리아는 이미 18 세때 기병대를 책임지는 장군이였다. 아버지 필리포스가 암살당하여 죽자 왕위에 오른 알렉산드리아는 페르시아 정벌까지 위업으로 이어받는다. 그리스는 어린 알렉산드리아를 얹보고 반란을 일으키자 즉시 테베, 아테네, 스파르타의 반란을 초기에 진압한다. 그는 3 만 5 천명의 보병과 5 천의 기병과 160 척의 함선을 이끌고 9 년만에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점령한다. BC. 332 년 티로스 전투에서도 페르시아는 패하고, B.C. 331 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도 완전 패멸한다. 그는 끊임없는 정복의 야망으로 인도까지 정복하지만 32 세의 나이로 요절한다.